

내 곡을 연주해 주는 은호에게

베토벤 아저씨가 들려주는
비창 소나타 이야기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Op.13
제1악장



“음악은 시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줘.
지금 이 곡을 연주하는 너와 나도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L. v. Beethoven

2 안녕! 나는 베토벤이야

안녕, 은호야!

나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야.

네가 요즘 내 비창 소나타를
연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 곡은 내가 직접 너에게

내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쓰는 거야.

함께 나의 음악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볼까?

“나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다.
사람을 놀라게 하고, 울린시키고,
때로는 슬프게 만드는 음악을!”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
나는 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
거리는 마차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했지.

하지만 나에게는 음악이
그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였어.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음악이
아직도 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이어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었지.



내 곡을 연주해 주는 은호에게

베토벤 아저씨가 들려주는
비창 소나타 이야기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Op.13

1 이렇게 시작해요 - Grave

비창 1악장은 무겁고 장중한 c단조 화음으로 시작해,
마치 무대에 서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네 이야기를 들어 봐!” 하고 말이야.

Grave



2 갑자기 달려요

Allegro di molto e con brio

Grave가 끝나면 음악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
완손은 계속 움직이고, 오른손에서는
힘찬 선율이 튀어나오지!

Allegro di molto e con b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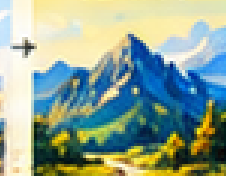
처음
(Grave)



달리기
(주제)



모험
(발현부)



돌아오기
(재현부)



음악은 시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편지란다.
이제 이 곡을 네가 들려줄 차례야.
- L. v. Beethoven

4 Grave는 천천히 걷는 음악이 아니야

Grave는 아주 느리고 장중해. 하지만 음악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야. 한 음이 다음 음을 향해 움직이고, 하나의 화음이 또 다른 화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이 부분은 마치 연극의 대사처럼 생각해 봐.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 크게 외치고, 어떤 순간에는 아주 조용히 속삭여.

5 그런데 갑자기...

Allegro di molto e con brio!

Grave가 끝나면... 잠깐 숨을 고르고..., 음악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 왼손은 계속 움직이고, 오른손에서는 날카로운 선율이 튀어나오지. 이제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아.

6 왼손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왼손의 빠른 움직임은 단순한 반주가 아니야. 그것은 음악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엔진과 같아. 이 위에서 오른손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왼손이 너무 크면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7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손이 아니야

빠르게 치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나는 네게 이렇게 묻고 싶어. “네가 이대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음악에는 목적지가 있어. 잠시 시작해서 점점 커지기도 하고, 긴장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풀어 주기도 하지. 아주 호음 있는 음악 하나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 전체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시작

모험

돌아옴

8 다시 나타나는 처음의 음악

한참을 지나 많은 일을 겪은 후,
처음의 음악이 다시 나타나.
하지만 이제는 처음과 다르게 들려.
마치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같은 장소를 다시 보는 것처럼 말이야.
같은 음악이지만,
네 마음도 이미 달라졌지?

9 어? Grave가 돌아왔어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처음에 등장했던 장중한 음악이
다시 나타난 거야.
왜 그럴까?
처음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것처럼 말이야.
같은 음악이 다시 나타나도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으니,
처음과 똑같이 들리지 않아.

10 다시 달려!

그리고 다시 Allegro!
이번에는 음악을 더 알고 있으니
조금은 서울 것 같지?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음악은 여러 조성을 지나고
긴장이 생기고, 익숙했던 재료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더 넓은 무대로 발전한다고 해.
처음에 만났던 음악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거지!

11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긴 모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음악을 만나게 돼.
이렇게 음악이 돌아오는 것을
'제헌부'라고 해.
출발하고, 모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하지만 단순히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 아니야.
모험을 다녀왔으니까
처음과 같은 음악도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12 나는 왜 c단조를 좋아했을까?

비창 소나타는 c단조야.
c단조는 슬픔만 있는 음악이라는 뜻은 아니야.
여기에 분노도 있고, 웅기도 있고,
앞으로 달려가는 힘도 있어.
나는 이 단조에 새로운 이야기를 썼고,
그 속에는 아주 희망적인 빛도 숨이 있어.

c 단조



강하고 깊은 이야기

13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네 곡을 연습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올 거야.
“야! 또 틀렸어!”
그러면 천천히 해.
그리고 한 번 더!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그리고 다시 함께.
빠른 연습도 좋지만
항상 베토벤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14 이제 나의 비창이야

나는 이 곡을 아주 오래전에 썼어.
그동안 수많은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했단다. 하지만 악보는
같은데 연주는 모두 달라.
왜냐하면 피아노 앞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야.

지금은 은호의 차례야.
좋은 연주는 많이 들어 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려줘.

베토벤의 편지

은호야.
음악은 정답이 아니라 이야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만들어 갈 비창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

- L. v. Beethoven